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크레딧 레터

하이일드 펀드 설정 규모 감소에 따른 BBB등급 수요 약세

- 저신용 등급 신용 이벤트와 공모주 실적 저조로 하이일드 펀드 설정 규모가 감소
- 하이일드 펀드 수요 위축으로 BBB등급 회사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BBB등급 발행 시장 위축으로 스프레드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확대될 전망

하이일드 펀드 설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24년 11월 이후 하이일드 펀드의 설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4월과 6월 저신용 등급에서 크레딧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한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저신용 등급에서 신용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A-등급 및 BBB등급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전과 달리 저신용 등급의 크레딧 이벤트가 우량 등급으로의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편, 하이일드 펀드의 주요 인센티브 중 하나였던 공모주 우선 배정은 '25년 이후 공모주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해지면서 수혜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하이일드 펀드의 실적 저하로 이어지면서,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 의욕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BBB등급 회사채 수요 감소로 인해 발행 부진 지속

BBB등급을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의 설정 규모 감소는 BBB등급 발행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24년 BBB등급의 월 평균 발행 규모는 약 2,400억원이었으나, '25년 1,200원에서 올해는 약 1,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발행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24년 BBB등급의 월 평균 발행 비중은 약 4.5%였으나, '25년 1.6%에서 올해는 1.3%까지 감소했다. BBB등급의 주된 수요처인 하이일드 펀드의 설정 규모 감소가 투자 위축으로 발행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요 부진에 따른 BBB등급 발행 위축에도 기업들은 회사채와 같은 시장성 차입보다는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로 선회하면서 BBB등급 발행 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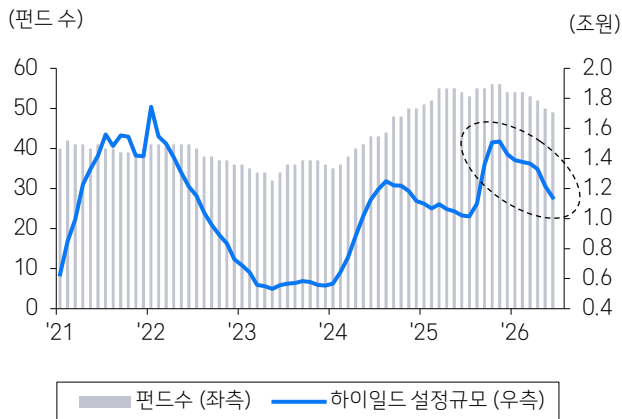
이전 대비 과도하게 낮아진 BBB등급 스프레드는 다시 확대될 전망

현재 A등급 대비 BBB등급 스프레드는 과거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래 활성화 부족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최근에는 BBB+ 등급의 우량 종목조차 일부 미매각 사례가 발생하며, 수요 부진이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BBB등급 내에서도 특정 우량 종목에 수요가 편중되며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했으나, 현재는 전반적인 수요 약세로 인해 이러한 차별화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BBB등급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BBB등급 스프레드는 하이일드 펀드 수요 회복 없이 지속적인 발행 위축과 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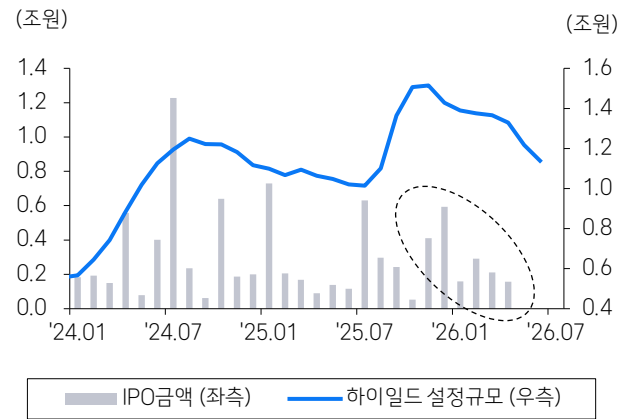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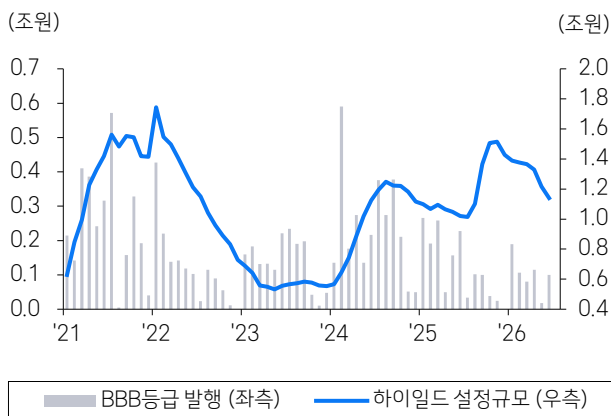
'25.11월 이후 하이일드 펀드 설정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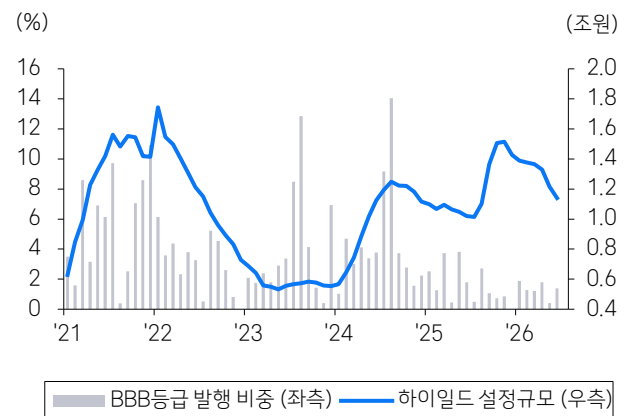
올해 저조한 IPO 실적으로 하이일드 펀드 설정규모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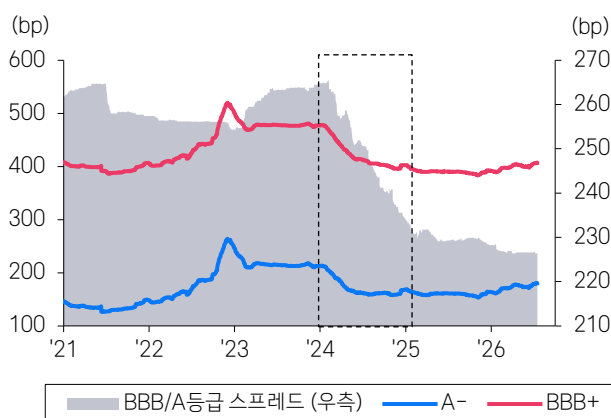
하이일드 펀드 감소에 따른 수요 약화로 BBB등급 발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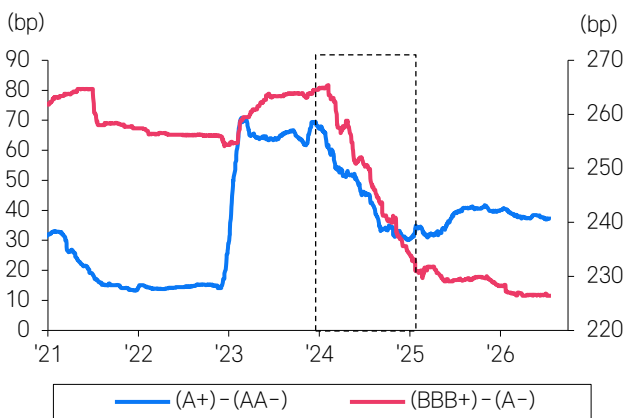
회사채 발행 중 BBB등급 발행 비중도 1%대로 크게 위축



'24년 이후 BBB+/A-등급 간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



과도하게 축소된 BBB+/A-등급 간 스프레드가 재확대될 전망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